

해설기사

94년 등록금 협상을 진단한다

3자협의체 나오르고 등록금 무리

인상률보다 교육재정 확보에 역점

수협협버스



매년 학교와 학생이 마찰을 거듭하는 '등록금 협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양측의 세부적 의견조정을 위해 계속될 실무자간 논의의 전기가 주목된다.

서울협버스



올해는 등록금협상의 양상이 여러가지 면에서 바뀔 예정이다. 사진은 본관 앞 잔디밭에서 대표들이 협상하는 모습.

중요사안 입장 조정 남아 합의서 이행 협의가 더 중요

에년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등록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그간 진행된 협상 양상을 살펴보면 지난 3월11일 대표자 협상을 시도한 이후로 수업료, 교육시설장기개발에 대한 협의,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 등의 중점사항에 대한 학교와 학생 양측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합의의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밖에 취업정보의 체계적 구축, 학생회는 5월 초순까지 이번 등록금 합의에 대해 확대운영 회의, 강의실 방문 등을 통해 일반학생들에게 알리는 기간을 갖고 이후 신입생에 대한 일부 교재의 환불, 가정통신문 발송등의 사안부터 차례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94년 등록금 책정에 대해 학생측이 요구한 재단 예산서를 학교측은 빠른 시일내에 공개키로 하였으며, 등록금 문제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합의서 전면 이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하수도 교민 및 대학문화 거리는 93년 합의서를 준용한 학교와 학생측의 공동안으로 건설하기로 하였고, 도서관의 9월 완공에 있어서는 도서관내부의 공간조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어렸으나 아직껏 그 구체적인 공동안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문화거리 건설문제와 강의실의 재배치수단을 위한 3자협의체 구성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조정이 현재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단대별 요구안의 경우도 자연대 중측, 산대대개원소위원회와 학생회, 사회대 공간확장 등 학교와 학생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합의안들이 아직 구체적인 시기 및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안들에 관련하여 예년과는 달리 이번 합의서의 처음 명시된 '합의서 이행점검을 위한 학교 학생의 정기적인 협의가 앞으로 인민과민 활발히 이루어질 것' 등 협의가 기대된다.

올해 등록금 협상 성과는 크게 재단공과와 학교 개혁에 3자 협의체를 통한 학생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학교측에서 발표한 올해 등록금협상에 관한 공고를 살펴보면 "재단은 94년 5월 결산 회계가 끝나는 대로 재단법인회, 병원회, 학교회계를 6월 이전에 공개한다"고 교육, 직원 학생의 대표로 3자 협의체를 학교가 주도하여 구성한다"고 3자 협의체는 경희발전 5개년 계획과 대학 개혁, 인적재정, 교과과정 개혁, 예산관리를 학내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인터뷰 학자주 사무국장 최용갑군을 만나

올해 등록금 협상은 여러모로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소의 소문일지 모르지만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협상의 과정이 일반학생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나 굳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없이도 협상의 타결을 볼 수 있는 제반 학생과 학교측의 인식 공유를 전제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최용갑(경희대 4)군을 만나 나눴다. "재단공과를 약속 받은 것 가장 큰 반響으로 삼는다." 등록금협상이 타결된 데 대한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담 밝힌 최용갑군의 답이다. "사실 올초에 있었던 간부수련회 때 올해 학자주의 목표로 재단공과를 내세웠을 때 다들 회의적 반응이었다. 92년에 3천 5백명의 학우들이 수업료 부담 재 노선에 투쟁했지만 재단공개에 불내 실패한 전례를 드는 것이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타결했다. 교육재정확보 투쟁의 첫걸음은 재단공개인 것이다"

지난 달 29일에 있었던 '동문 설립인 초청 간담회'에서 공영일 총장은 "다른 대학은 아직도 등록금 문제로 학교와 학생간의 진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학생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고 올해 등록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용갑군은 "올해는 학생들의 물리적 행동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교육시정개발과 대학개혁위원회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물리적 행동을 맞게 될 경우 학교당면에 타격이 될다는 것을 감안한 것 같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배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자주의 싸움은 등록금투쟁이 아니라 '학원대개혁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학자주에서 해야 할 과제로서

실상 한 기업체의 연구소에 불과하다. 지식의 자본에 종속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대학은 참정적인 정경으로 인하여 선진 산학협동체제를 받아들여야만 이것은 기업에 필요로 하는 연구수준에 대학이 설립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대, 연세대가 그러한 예이다. 대학의 자치가 필요하다. 정부, 자본, 사회로부터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학의 고위직들은 사회의 총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대학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적 지식의 보고되어야 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까지 3자 협의체의 학원대개혁을 성상하는 작업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자고 실다"는게 인터뷰를 마치고서 한 그의 말이다.

재단공개, 학생참여 제도화 일반 학생들과 공유 부족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올해 등록금협상의 목표로 5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그것은 ▲교육시정 개발 반대와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 ▲재단공과와 재단전입금 확보 ▲교수,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3자협의체를 통한 정보발달인 수립 ▲재단공과에서의 학생참여 보장 ▲장소확장과 교수채용, 전공개편에서의 학생참여와 제도적 보장이다.

학자주는 이제까지 등록금투쟁을 통해 인상률은 낮추고 학교 충수입금 대비 등록금의 증진을 해마다 증가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재단공개라는 것이다.

올해의 등록금 투쟁은 교육재정 확보와 학원의 민주적 운영에서 여러가지 혁신적인 제도가 시행한다 등이었다.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것과 변동없이 인문사과대학은 15%, 기타계열은 14%로 타결되었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등록금투쟁이 아니라 '학원대개혁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학자주에서 해야 할 과제로서

실상 한 기업체의 연구소에 불과하다. 지식의 자본에 종속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대학은 참정적인 정경으로 인하여 선진 산학협동체제를 받아들여야만 이것은 기업에 필요로 하는 연구수준에 대학이 설립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대, 연세대가 그러한 예이다. 대학의 자치가 필요하다. 정부, 자본, 사회로부터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학의 고위직들은 사회의 총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대학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적 지식의 보고되어야 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까지 3자 협의체의 학원대개혁을 성상하는 작업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자고 실다"는게 인터뷰를 마치고서 한 그의 말이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올해 등록금협상의 목표로 5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그것은 ▲교육시정 개발 반대와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 ▲재단공과와 재단전입금 확보 ▲교수,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3자협의체를 통한 정보발달인 수립 ▲재단공과에서의 학생참여 보장 ▲장소확장과 교수채용, 전공개편에서의 학생참여와 제도적 보장이다.

학자주는 이제까지 등록금투쟁을 통해 인상률은 낮추고 학교 충수입금 대비 등록금의 증진을 해마다 증가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재단공개라는 것이다.

올해의 등록금 투쟁은 교육재정 확보와 학원의 민주적 운영에서 여러가지 혁신적인 제도가 시행한다 등이었다.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것과 변동없이 인문사과대학은 15%, 기타계열은 14%로 타결되었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등록금투쟁이 아니라 '학원대개혁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학자주에서 해야 할 과제로서

한다 ▲교과과정 개혁, 교수채용, 강의평가에 있어 학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단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안은 전후 수용하고 이의 재검은 93년도까지는 학교 측 예산 중 다른 부분을 삭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학교가 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현재 공간문제에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와 학생들의 협의하여 올해안에 공간 확장에 관한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에 포함시켜 이를 중점이 책임지고 추진하고 약속한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의 올해 등록금협상의 목표로 5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그것은 ▲교육시정 개발 반대와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 ▲재단공과와 재단전입금 확보 ▲교수,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3자협의체를 통한 정보발달인 수립 ▲재단공과에서의 학생참여 보장 ▲장소확장과 교수채용, 전공개편에서의 학생참여와 제도적 보장이다.

학자주는 이제까지 등록금투쟁을 통해 인상률은 낮추고 학교 충수입금 대비 등록금의 증진을 해마다 증가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재단공개라는 것이다.

올해의 등록금 투쟁은 교육재정 확보와 학원의 민주적 운영에서 여러가지 혁신적인 제도가 시행한다 등이었다.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것과 변동없이 인문사과대학은 15%, 기타계열은 14%로 타결되었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등록금투쟁이 아니라 '학원대개혁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학자주에서 해야 할 과제로서

실상 한 기업체의 연구소에 불과하다. 지식의 자본에 종속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대학은 참정적인 정경으로 인하여 선진 산학협동체제를 받아들여야만 이것은 기업에 필요로 하는 연구수준에 대학이 설립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대, 연세대가 그러한 예이다. 대학의 자치가 필요하다. 정부, 자본, 사회로부터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학의 고위직들은 사회의 총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대학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적 지식의 보고되어야 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까지 3자 협의체의 학원대개혁을 성상하는 작업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자고 실다"는게 인터뷰를 마치고서 한 그의 말이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올해 등록금협상의 목표로 5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그것은 ▲교육시정 개발 반대와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 ▲재단공과와 재단전입금 확보 ▲교수,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3자협의체를 통한 정보발달인 수립 ▲재단공과에서의 학생참여 보장 ▲장소확장과 교수채용, 전공개편에서의 학생참여와 제도적 보장이다.

학자주는 이제까지 등록금투쟁을 통해 인상률은 낮추고 학교 충수입금 대비 등록금의 증진을 해마다 증가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재단공개라는 것이다.

올해의 등록금 투쟁은 교육재정 확보와 학원의 민주적 운영에서 여러가지 혁신적인 제도가 시행한다 등이었다.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것과 변동없이 인문사과대학은 15%, 기타계열은 14%로 타결되었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등록금투쟁이 아니라 '학원대개혁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학자주에서 해야 할 과제로서

실상 한 기업체의 연구소에 불과하다. 지식의 자본에 종속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대학은 참정적인 정경으로 인하여 선진 산학협동체제를 받아들여야만 이것은 기업에 필요로 하는 연구수준에 대학이 설립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대, 연세대가 그러한 예이다. 대학의 자치가 필요하다. 정부, 자본, 사회로부터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학의 고위직들은 사회의 총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대학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적 지식의 보고되어야 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까지 3자 협의체의 학원대개혁을 성상하는 작업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자고 실다"는게 인터뷰를 마치고서 한 그의 말이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올해 등록금협상의 목표로 5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그것은 ▲교육시정 개발 반대와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 ▲재단공과와 재단전입금 확보 ▲교수,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3자협의체를 통한 정보발달인 수립 ▲재단공과에서의 학생참여 보장 ▲장소확장과 교수채용, 전공개편에서의 학생참여와 제도적 보장이다.

학자주는 이제까지 등록금투쟁을 통해 인상률은 낮추고 학교 충수입금 대비 등록금의 증진을 해마다 증가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재단공개라는 것이다.

올해의 등록금 투쟁은 교육재정 확보와 학원의 민주적 운영에서 여러가지 혁신적인 제도가 시행한다 등이었다.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것과 변동없이 인문사과대학은 15%, 기타계열은 14%로 타결되었다.

학원자주추진위원회는 등록금투쟁이 아니라 '학원대개혁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학자주에서 해야 할 과제로서

김영춘 총장

총장대 통일원 차원의 '남북한 관계 현안'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전동훈)는 평화와 교육, 사회를 개척한 신남기 조장동료에서 면사무소 초빙된 김영춘 통일원 차관을 "최근 남북한 관계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했다. 다음 내용은 김영춘 차관의 주제발표를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본인은 "최근 남북한 관계 현안"이라는 주제로 ①북한 박연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의 진위 ②최근 북한 인민들의 발표 시제 ③북한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관계라는 세가지 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로 최근 박연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의 의도는 북한에 대해 북한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구축을 북한에 대한 옹호, 압력체제로 인식하여 국제공조체제에 대한 사적제언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발언은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을 강요한 발언으로의 불만을 표명하기 위한 대남성명전의 일환인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을 결속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둘째로 최근 시베리아 벌목노동자를 포함하여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북한 사람이 2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김정일체제가 표면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불만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불만요소는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김정일의 친동생인 김영주의 국가부추적 기용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장군의 불만정세를 극복할 수 있는 후계자에 대한 지신감이 결여되어 그에 대한 일시적만족으로 동생 김영주를 기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로 한반도를 둘러싼 핵문제, 한중은 한반도, 핵문제와 같은 것이다. 한중은 민족분단의 문제이다. 다른 한편은 국제적 성격의 문제이다.

남북분쟁은 92년 6월 한반도 비핵화선언문 22조에 걸친 핵문제 회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금년 1월 IAEA 핵안전협정 서명후 6개월에 걸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입장은 협상과 제재로 양면적 전략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도 없는

다들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다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 금강 세계적 명성의 패턴, 수직, 실란트 - 고려화학 뛰어난 천재와 완벽함 시공 - 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아얌 무한한 코드 - 금강 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금강·고려

▲출사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